

이재명 “한국은 지금 4대 위기… 총선서 정권심판해야”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정부가 오히려 위기 만들어 윤정부, 정적 죽이기에 올인 민주당이 한국 바로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영부세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 도구로 될 것”이라며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 국가군사 대국이 돼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 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개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광 자원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민주당 공천 면접 시작…도덕성에 초점

광주·전남 후보는 2일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한다. 광주·전남지역 지역구는 2일 집중적으로 면접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한 지역구에 출마예정자가 4명 이상인에도 총 면접시간이 10~13분에 그쳐 심층 면접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면접 대상은 서울 종로와 중구·성동을, 용산, 강북을, 광진갑을, 성북 갑을, 도봉 갑을, 은평 갑을, 인천 계양을, 부평을 등 30개 지역 공천 신청자다. 전략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전남지역은 2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갑을 시

작으로 이날 대부분 선거구에서 면접이 진행된다.

민주당 공천 심사는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 및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면접 1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면접의 초점은 도덕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관위가 지난 22~28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문한 결과 ‘부패 근절’이 1순위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면접을 마치고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평가 하위 20%인 현역 의원에 대해선 공천 결과 발표 전 대상자에게 차례로 통보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신당 공약 공유받지 못해 합당에 신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광주 찾아 “호남 출마 인사 확보 중”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며 세월에 나온 개혁신당이 광주·전남지역에도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총선에서 지역 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은 31일 합당 선언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세종시와 광주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에 출마할 인사를 확보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남뿐 아니라 (모든 지역)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저희(희)가 당직을 맡아 먼저 언론에 선보이는 단계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합당으로 인해 후보 등록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무분별한 입후보 등록이 아닌 광주·전남에서 의미있는 득표율을 확보할 후보를 낼 것을 공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 되는 호남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확보하는 후보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난 제 입장에서 때론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많이 내는 것이 오히려 당세를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맡은 양향자 의원과 천하람 최고위원이 수년간 지역에서 활동해온 점은 개혁신당의 강점으로 꼽혔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애착이 많다”며

“천하람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님의 지역구가 광주·전남이다 보니 더더욱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느 정당보다 밀도 있게, 진정성 있게 (유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 때 광주를 자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보니 어떤 이슈에 대해 외부인이나 타지역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교착 지점이 생겨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혁신당이 그런 것을 과감히 뚫어낼 수 있도록, 순환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현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천하람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시더라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 중) 특별히 하는 게 없이, 공정에 모나지 않게 갑나 무 밑에 서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광주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무등산 정상 개방로에 전기버스 도입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개혁미래당과의 합당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하는 세력은 어디라도 연대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며 “개혁미래당이 2월4일 창당을 하니 창당 이후에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호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만약 개혁미래당에서도 호남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호남 지역민들 여론이 먼저 ‘합쳐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미래당의) 미래에 대한 공약을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1일 순전을 방문해 전남 동부지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URI (주)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water treatment facility. Text includes 'Environmental &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주식회사 누리', and a list of various water treatment project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aju, Ansan, and Gwangju.